

고흥군 청년 주거 지원, 인구 늘리기 기반 다진다

보금자리 30호 분양, 공공임대 40호·스마트 영농 빌리지 80호 조성 임대료 지원 대상·금액 확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고흥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은 19~49세 청년인구 비율이 2018년(1만 6428명) 대비 2023년 6월 현재 23% 이상 감소(1만 2646명)돼 미취학 아동과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는 등 인구 감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등 청년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예비 청년 창업자들은 고흥군 정착의 걸림돌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군은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비전 달성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거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주거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양질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도양읍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30호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분양을 마쳤고, 점암면 신안초 폐교 부지를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 주택 45호를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고흥만을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에 따른 청년 및 신혼 부부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빌라 형태의 80호 규모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사업'의 월 임대료 청년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도 1년 120만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흥군, 공기업 등에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군은 군의회 협의를 거쳐 시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민선 8기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이라며 "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보성군 가을 재배용 무병 씨감자 2종 농가 보급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농가에 전할 씨감자를 배분하고 있다.

보성군이 오는 8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 재배용 무병 씨감자 2종(추백·금선) 22.6t을 공급한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씨감자 2종은 조직배양과 수경재배, 바이러스 방제 기술 등의 기술력을 투입해 생산했다.

3g~50g 크기로, 정부 보급종(50g~250g)의 4분의 1 물량만 가지고 재배할 수 있다.

종자가 작아 자르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파종할 수 있다고 보성군 측은 설명했다.

새 품종 '금선'은 지역에 적합한 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가을 2기작 재배가 가능한 품종으로, 포슬포슬한 식감과 맛이 있다. 병해충과 과습 피해에 강해 기존 품종 대비 30% 이상 수확량이 많다.

보성군에서는 한 해 1250ha 면적에서 감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2200t의 씨감자를 사용하고 있다.

씨감자의 4.5%는 정부보급종(100t) 공급량이며, 부족한 분량은 보성군이 한 해 두 차례 자체 생산해 공급하는 씨감자로 충당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18세~45세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순천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다.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된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등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12월까지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여수시 '100원 택시' 19개 지역으로 확대 운행

2016년 6월 시작 2797명 이용

여수에서 1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3곳 늘어나 총 19개 지역에서 운행한다.

'100원 택시' 확대 지역은 삼일동의 자내리, 내동, 고갯재 마을 등 3곳이다.

이들 지역 100원 택시는 8월부터 운행한다.

여수시는 지난 28일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운송사업자와 마을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100원을 부담하면 마을회관에서 주소지 읍면동(출장소 포함) 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제도다.

탑승자는 여수시가 발행한 100원 택시카드와 현금 100원을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내고 이용하면 된다.

사용 횟수는 마을별 주민 수 기준으로 30~300회까지 차등 부여된다.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요금은 여수시가 보조금 예산으로 운송사업자



여수시와 택시운송사업자, 삼일동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지난 28일 삼일동 주민센터에서 100원 택시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에게 보전해준다.

지난 2016년 6월 시작해 지난해에는 2797명이 이용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도 97%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는 교통 약자와 취

약지역 교통편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8월 30일까지... 기초·심화과정

곡성군이 오는 8월 30일까지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 기술을 전하기 위한 '맛다곡성 창업 교육'을 주 1회 이상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농식품 가공·창업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다.

지난 28일 시작한 이 교육은 8월 30일까지 주 1회 이상 진행한다. 기초와 심화과정을 합해 총 8회 34시간 동안 교육을 한다.

식품 주요 가공 기술과 가공 장비 이용, GAP·HACCP 등 우수농산물관리·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가르친다.

작업과 점 생산법 등을 실습으로 직접 체험해보도록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곡성군 농산물 가공·창업교육에 참가한 농업인들이 지난 28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곡성군 제공>

광양시 3년간 중단됐던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캠프 재개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던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캠프를 여름방학을 맞아 재개했다.

영어캠프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합숙형 캠프로, 학생들이 다양한 영어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지역 내 초·중등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박 7일간 인천시 영어마을에서 진행된다. 영어캠프 참가비는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초등, 중등부로 나눠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맞춤형 수업으로 ▲24시간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기본교육 ▲세계여행(공항, 비행기, 호텔)상황 체험 ▲세계 속의 한국 영화, K-POP 알아보기 등이 진행된다.

올해 실시하는 영어캠프는 학생들이 광양에 대한 역사와 현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양 매화공예품 및 랜드마크 케이크 만들기, 광양 9경 관광지도 제작 등 광양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추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